

‘아낙네’ 매개로 예술 외길... 60년 화업 살핀다

국중호 작가 가치관·조형양식 조명
12일부터 7월 24일까지 국운미술관

시대별 형태·배경 변모 과정 살펴 “은기 속 궁극적 희망 보고 있다”

작가가 걸은 삶의 여정과 예술세계를 살펴보고 공감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된다.

국운미술관(관장 윤영월)은 광주시 주관으로 12일부터 7월 24일까지 소장품 기획전 ‘삶을 그리다’라는 주제로 갖는다. 이번 전시는 국중호 작가(전 목포대 교수)의 상징적 소재인 ‘아낙네’를 매개로 시대별 형태와 배경이 변모해온 과정을 깊이 있게 조명하기 위해 기획됐다.

작가가 화폭에 담은 삶의 여정을 조명하는 이번 기획전에서는 1976년도 작 ‘홍어 파는 아낙네’부터 ‘해탈’, ‘우리동네’, ‘운주사 석불’, ‘아낙네의 삶과 환희’, ‘과수원의 봄’, ‘생명의 순환’. 2026년도 ‘삶을 그리다’까지 소장품 대표작 17점을 출품, 선보인다. 이런 작품들을 통해 작가의 가치관과 고유한 조형 양식을 심도있게 조명하는 동시에 관람객들에게 작품의 본질에 다가가는 기회를 제공한다.

한국적 풍토의 정서와 두터운 마티에르 질감으로 삶의 모습을 표현해온 작가는 과거 운주사 석불에



‘꽃바람’

서 느낀 삶의 감정을 시작으로 출퇴근길에 마주한 아낙네들의 소박한 모습을 화폭에 담아왔다. 이후 시대의 흐름에 따라 형태와 배경을 변화시키며 작업의 범위를 넓혀 작가만의 독자적인 예술세계를 구축해왔다.

작가의 회화는 캔버스 바닥에서부터 몇 겹씩 칠하며 다져온 색채의 층으로부터 소박하고 밀도 있는 감성의 두께를 형성해내는 한편, 이러한 마티에르 효과나 색채의 밀도를 바탕으로 배꽃이 아니라 지 고목나무, 아낙네들, 드넓은 들판 같은 형상들을 추상적으로, 별다른 설명없이 단순화된 형태로 표현하고 있으며, 모더니즘의 형식

을 수용해 꾸준하게 모세되는 형식미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향토적 소재와 모더니즘의 형식미는 서로 대비되면서도 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자극해 회화적 쾌감을 제공하고 있다는 평이다.

장석원 미술평론가(전 전남대 교수)는 ‘회화적 인간애와 희망’이라는 평문을 통해 “설명이 삭제돼 있으면서도, 즐거운 그림, 별다른 사건을 전제하지 않으면서도 신선한 정감을 변함없이 느끼게 하는 그림이다. 그는 시각적으로 매우 두텁고, 착란 효과를 가져오면서 단순해지기 쉬운 소재를 갖고 다양하게 간주하는 마티에르 효과를 사랑



‘아낙네’

하고 있다”며 “이런 정경이 그의 예술로 하여금 사람들과 깊게 유대감을 갖게끔 도와주고 있고, 어쩔 수 없는 그의 인간애적 속성이 그의 예술가적 장래를 의미있게 지속시키리라 생각한다. 그의 회화에서 느끼는 은기 속에서 궁극적인 희망을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중호 작가는 그동안 1970년대 화순 운주사 석불을 소재로 한 연작 ‘해탈’을 시작으로 ‘우리동네’와 ‘아낙네’ 등 연작을 선보여왔다. 작가는 조선대와 중앙대 대학원에서 미술교육과 회화를 공부했으며, 전남대·광주시립 초대작가와 목포대 조형미술연구소장·예술대학장 등을 두루 지냈다.

지난 2012년 목포대 교수를 정년 퇴임했다. 부인인 윤영월 전 광주서부교육청 교육장(조각가)과 함께 국운미술관을 2008년 7월 개관해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한편 ‘작가와외의 만남’ 행사로 진행된 개막식에서는 작가의 60년 예술 인생이 담긴 작업 세계와 작품에 얽힌 이야기를 직접 나누고 소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작가의 예술 인생을 기록하고 더 많은 대중과 공유하기 위해 제작된 영상 콘텐츠를 온·오프라인으로 송출하는 시간으로 꾸며진다. 개막식은 13일 오후 3시.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남도의 풍경과 문화... 깊이있는 사유 투영

전업미술가협회 초대전 13일까지 강진아트홀서
광주 66명·서울 40명·대구 9명·제주 8명 등 출품

꼬마장승과 함께 떠나는 여행
27~28일 ACC 어린이문화원서

(사)한국전업미술가협회 광주시지회(회장 김영화, 이하 광주전업미술가협회)는 초대전을 지난 2일 개막, 오는 13일까지 강진아트홀에서 ‘땅과 바다의 울림’이라는 타이틀로 갖는다.

이번 초대전은 광주지회 주관으로 광주 66명을 비롯해 서울 40명, 대구 9명, 제주 8명 등 총 123명의 작가가 출품한다.

출품작가들은 각 지역을 연고로 분주한 창작 활동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초대전에 저마다의 개성어린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다양한 전국의 회원작가들은 다양한 시각을 통해 구상에서부터 추상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작품을 구제화하고 있다. 특히 각자 깊이있는 사유를 투영하고 있는 만큼 작가 자신만의 시각과 재해석으로 접근한 물상과 형상들 그리고 존재 안팎 유무형적 세계를 접할 수 있다.

남도의 풍경과 문화를 비롯해 그 속에 살아 숨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회원 작가들의 다양한 시선으로 담아내고 있는 이번 전시는 작품을 통해 강진이 지닌 고유한 아름다움과 깊이를 느끼고, 한 지역을 이해하며 공감하는 작가들의 마음이 투영됐다.

김영화 회장은 이번 전시에 대해 “강진은 남도의 따뜻한 정취와 깊은 역사, 그리고 자연과 사람



광주 김영화 작 '시랑 여행'

이 어우러져 오랜 시간 많은 이야기를 품어온 고장이다. 푸른 산과 넓은 들, 잔잔한 바다와 계절마다 다른 빛으로 물드는 자연이 함께하고, 고려청자의 찬란한 전통과 다산 정약용의 깊은 사유가 깃든 곳이기도 하다. 들과 바다, 삶과 숨결이 어우러진 강진은 예술가들에게도 풍부한 영감을 주는



제주 한용국 작 '삶의 자리'

소중한 공간”이라면서 “이번 전시가 전업미술가협회의 발전을 더하는 계기가 되고, 회원들이 서로 의지하며 소통하는 뜻깊은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전업미술가협회 신재남 이사장은 “모처럼 뜻깊고 의미 있는 전시 행사에 현지에 참여하

는 작가 여러분께서는 강진의 역사적 승결과 아름다운 풍광을 흠뻑 느낄 수 있는 감동적인 시간이 되리라 믿는다”면서 “출품작들로 인해 아름다운 예술의 향기가 퍼져 나가 강진 사람들에게 잠시나마 즐거움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고선주 기자 rainidea@

살다, ‘모두의 공방’ 참여자 모집
5개 프로그램 10일까지 접수

광주청소년살다자이언센터는 공방의 창작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모두의 창작’ 참여자를 모집한다. 원데이클래스로 이뤄지는 모두의 창작은 5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나무를 깎아 나무의 접시 만들어보는 생활목공방, 노끼를 만드는 음식공방, 오일파스텔로 포스터를 그리는 시각디자인방, 자투리 천을 활용해 손자수로 핀 뱃지를 제작하는 살림공방, 개리치 밴드업을 활용해 음악을 만드는 소리작업장 등이다.

프로그램은 오는 13일 오후 2시 살다센터 5개 공방에서 동시에 이뤄진다. 각 프로그램별로 6~10명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면 오는 10일까지 구글폼(bit.ly/2026모두의창작)에서 프로그램을 신청을 하면 된다.

접수 확인은 개별적으로 이뤄지며 문자를 통해 참여 가능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참가비는 14~25세 무료, 25세 이상 5000원. 문의 062-224-0543. 정채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북중미 월드컵’ 현장 가는 이이남 미디어작품 기념 미디어파사드 프로젝트 7월까지...멕시코 사포판 바실리카서

‘2026 북중미 월드컵’ 기간 중 이 지역 출신 미디어아티스트 작품이 전세계 축구팬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현장에서 선보인다.

7월 이이남스튜디오에 따르면 ‘2026 북중미 월드컵’ (11월~7월 19일) 기념 미디어파사드 프로젝트가 ‘빛으로 잇다’라는 타이틀로 지난 6일부터 오는 7월까지 멕시코 할리스코주 의 대표 역사·종교적 상징 건축물인 ‘사포판 바실리카’에서 주멕시코문화원과 사포판 관광부의 협력 아래 진행된다.

멕시코의 역사적 건축물이 한국의 첨단 디지털 예술로 화려하게 물들일 이번 프로젝트는 미국, 캐나다와 함께 2026년 월드컵을 공동 개최하는 멕시코에서 대표팀의 조별리그를 비롯한 모든 경기가 치러지는 것을 계기로 기획된 가운데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선전과 더불어 한-

멕시코 양국 간 문화적 교류를 한 단계 격상시키는 기념비적인 문화 행사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멕시코 할리스코주(州) 사포판(市) 관광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추진되는 이번 프로젝트 장소인 ‘사포판 바실리카’는 멕시코 내에서 역사적·종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상징성을 지닌 건축물이자, 지역의 주요 문화 행사가 거행되는 핵심적인 상징 공간이다.

이번 프로젝트의 메인 메가폰을 잡은 이이남 작가는 고전 명화를 현대적인 디지털 기술과 접목해 재해석하는 세계적인 미디어아티스트로, 이 작가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한-

국 전통의 미감과 현대적 디지털 미학, 축구라는 전 세계인의 축제가 가진 역동성을 융합한 독창적인 미디어파사드 작품을 선보인다.

특히 북중미 월드컵이라는 글로벌 축제를 계기로 멕시코의 심장부에서 국내 대표적인 작가의 미디어아트를 소개할 수 있는 가운데 스포츠를 통한 연대를 넘어, 디지털 예술로 현지 시민 및 국제 관람객들과 깊이 교감하고, 한국 미디어아트의 위상과 양국의 문화적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번 ‘2026 북중미 월드컵 기념 미디어파사드 프로젝트’는 월드컵이 개최되는 6월과 7월 동안 멕시코 사포판 바실리카에서 상시 상영되며, 현지를 찾는 이들에게 잊지 못할 밤의 예술적 영감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이남 작가는 “월드컵을 찾은 글로벌 축구팬 및 현지 시민 대상, 한국의 현대적 미감과 미디어아트 기술력을 각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고선주 기자 rainidea@



정채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